

‘프로듀스 101’ 국민 프로듀서가 뽑은 보이그룹

# ‘워너원’ 출격



‘프리미어 쇼콘’서 공식 데뷔 ... 관람객 인산인해

“일단 시작에 집중 ... 11명 함께 정상으로 갈 것”

3개월간 대장정 끝에 ‘국민 프로듀서’의 선택을 받은 11인조 그룹 워너원이 드디어 데뷔 무대에 오른다.

앨범 ‘프로듀스101’ 시즌2 총영 후 쏟아진 ‘러브콜’ 덕분에 이미 다수 광고와 예능 프로그램에 얼굴을 비친 워너원은 7일 저녁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쇼케이스 겸 콘서트 ‘프리미어 쇼콘’을 통해 공식 데뷔했다.

워너원은 이에 앞서 기자간담회에 참석, 출연 중인 예능 ‘워너원고’에서 창작한 팀 구호 “올 아이 워너 두”(All I Wanna Do)를 외치며 출사표를 던졌다.

이날 현장에는 구름떼처럼 몰린 관람객의 줄이 대로변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간담회 진행을 맡은 개그우먼 신보라가 이런 인기를 실감하느냐는 말에 웅성우는 “앨범 준비를 하느라 밖에 나가본 적이 거의 없다”면서 “‘프듀2’가 끝나고 어머니와 밖에 돌아다니는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실감했다”고 답했다.

워너원은 ‘프로듀스101’ 시즌1을 통해 탄생한 아이오아이처럼 프로젝트 그룹이다. 활동기한이 끝나면 결국 각자 속한 팀이나 소속사로 돌아가야 하지만, 워너원은 일단 ‘시작’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데뷔라는 단어가 코앞에 다가오니 현실인지 꿈인지 믿기지 않고 신기할 따름입니다. 지금은 그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어요. 이제 출발이다 보니 워너원의 팀원으로서 시작을 잘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박우진) 이번 앨범 ‘1X1 = 1’은 만남부터 이별까지 사랑의 과정을 연산기호로 풀어낸 ‘연산 시리즈’의 첫 번째라고 워너원은 밝혔다. 팬들이 끌려온 타이틀곡 ‘에너지틱’과 앨범 부제이자 인트로인 ‘투 비 원’(To be One), 타이틀곡 후보였던 ‘활활’(Burn it Up), 팬송 ‘워너비’(마이 베이비), ‘프듀2’에서 선보인 ‘이 자리에’, ‘나야 나’, ‘네버’(Never)가 담겼다.

윤지성은 앨범명에 대해 “너와 나, 우리가 만나 하나가 된다는 뜻이고 11명 소년이 모여

정상으로 가겠다는 포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재환은 타이틀곡에 대해 “보컬로서 고음 애드립이 있어 좋다”고 말했다.

이미 큰 팬덤을 확보한 멤버들은 팬들이 지어준 애칭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다.

“제가 필살기를 열심히 준비해서 (방송에서) 윈코를 했는데, 워너블(워너원 팬클럽 이름) 여러분께서 ‘윈크’와 ‘애깅’(애기)을 합친 ‘윈깅’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귀여운 별명을 지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박지훈) 멤버들은 엑소, 방탄소년단 등 최고 아이돌 그룹들이 섰던 대형 공연장 고척돔에서 데뷔하게 된 데 대해서는 저마다 감격에 겨운 소감을 전했다.

강다니엘은 “엑소, 방탄소년단 선배님들 콘서트 영상을 보면서 언젠가 저곳에 서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다시는 못 올 것 같은 고척돔이라는 큰 무대에서 데뷔하는 게 꿈만 같다”며 “어머니도 주변에 자랑을 많이 하셔서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황민현도 “저희 데뷔를 축하해주려 오신 많은 분을 위해 열심히 춤추고 노래하며 오신 분들께 좋은 추억을 만들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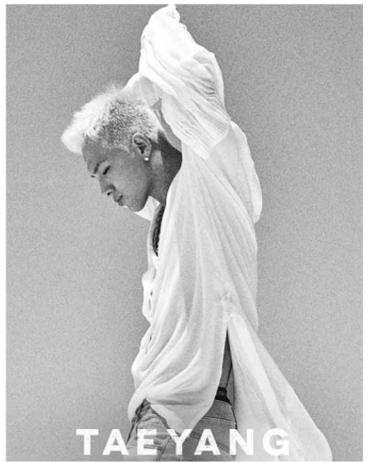
# ‘빅뱅’ 태양, 16일 정규 앨범 발표

그룹 빅뱅의 태양(본명 동영배·29)이 16일 정규 앨범 ‘화이트 나이트’(WHITE NIGHT)(사진)를 발표한다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7일 밝혔다.

태양이 신보를 내는 것은 2014년 6월 발표한 정규 2집 ‘라이즈’(RISE) 이후 3년 2개월 만이다.

연초 빅뱅 활동 이후 본격적으로 앨범 준비에 매진했으며 최근 해외에서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쳤다. 그는 2008년 미니앨범 타이틀곡 ‘나만 바라봐’를 내며 빅뱅 멤버 중 가장 먼저 솔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매력적인 R&B 보컬과 댄스 실력으로 존재감을 보여줬다. 이후 ‘웨딩드레스’, ‘웨어 유 앳’(WHERE U AT), ‘아이니드 어걸’(I NEED A GIRL), ‘링가링가’(RINGA LINGA), ‘눈, 코, 입’을 잇달아 히트시키며 자신만의 음악 영역을 구축했다.

태양은 솔로로 컴백한 뒤 26~27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세 번째 국내 솔로 공연이자 두 번째 월드투어의 서울 공연인 ‘화이트 나이트’를 개최한다. /연합뉴스



# 김재중·유이, KBS 2TV ‘맨홀 ...’서 호흡

러브코미디·타임슬립 결합

아이돌스타 출신 김재중과 유이가 코미디로 만났다. 과연 이들의 하모니는 어떨까.

KBS 2TV가 ‘7일의 왕비’ 후속으로 오는 9일 밤 10시 첫선을 보이는 ‘맨홀 - 이상한 나라의 필’은 김재중과 유이가 작정하고 덤벼들 코미디다. 멜로가 중심에 있던 하지만 근사한 왕자, 공주가 등장하지 않고, 슬랩스틱 코미디가 이어진다. 김재중과 유이는 드라마의 예고편에서부터 코믹한 춤을 능청스럽게 선보이며 관심을 끌었다.

제작진은 7일 “이제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처절하면서도 유쾌한, 그러면서도 가장 진솔한 사랑 쟁취기를 그리겠다”라고 밝혔다.

드라마는 코미디에 시간여행을 결합했다. 시간여행의 통로가 바로 제목에 나오는 ‘맨홀’. 주인공인 봉필이 우연히 맨홀에 빠지면서 판타지 모험이 펼쳐지게 된다.

지난해 12월 군복무를 마친 JYJ의 김재중이 ‘봉필’을 맡아 2년 만에 연기를 재개한다.

봉필은 집안의 3대 독자로, 소싯적 육상선수를 꿈꿨지만 지금은 공무원 준비 3년째인 동네 대표 백수다. 돈 한 푼 없고, 무릎 나온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동네를 돌아다니는 한심한 인생이다. 그런 그가 담배라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옆집에 사는 ‘수진’을



김재중·유이

태어난 순간부터 28년간 짝사랑하고 있다.

제작진은 “봉필이 짝사랑하는 수진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어디로 될지 모르는 배리어터리한 시간여행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김재중은 “건장하게 제대를 하고 건장한 활동을 보여드리고 싶던 와중에 ‘맨홀’을 만났다”면서 “봉필이라는 캐릭터가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저 스스로도 기대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간여행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제작진은 “재미있게 잘 나와주면 시청자들은 타임슬립에 대한 것은 보지 않고 재미를 쫓아가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여름기획 다큐멘터리 3일 (떠나면 보인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윤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아트아시아 스페셜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도전 (재) 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00 1대 100 (재)	30 시청자 TV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생생정보스페셜 40 (읽어주면 좋고 아니면)냄비받침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합설계 (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0 여름방학특선 애니메이션 붐바와 톰바		20 헬로키키 동물교실	55 닥터 365
2	20 한국인의 밤상 (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재)	15 텔레몬스터 25 수빈스토리 2 55 별별머리 (재)	00 뉴스브리핑
3	10 여름휴가에 읽으면 좋은 고전 시리즈 서가식당 (재)	00 2017 런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하이라이트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재)	00 MBC 뉴스M	00 영재발굴단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제보자들 (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10 조지(재) 45 날씨와 생활 50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아라라
7	00 KBS 뉴스 7 35 리얼토크, 날	50 이름 없는 여자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10 생방송 TV블로그 공감리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클로벌24 55 1대 100	55 별별머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10	00 시사기획 창 55 숨터	00 학교 2017	00 왕은 사랑한다	00 조작
11	00 KBS 뉴스라인 40 UHD 특집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읽어주면 좋고 아니면)냄비받침	10 MBC 100분 토론	10 불타는 청춘
12	30 여름기획 독립영화관 <렛미인>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MBC 뉴스 24 45 오후생각스페셜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왕초보 영어	09:40 성난 물고기(재)	15:20 우주탐험가 챗	20:50 세계테마기행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국 차츰 기행 - 완산, 소수민족과 차>	10:30 한국기행(재)	15:35 모피와 친구들	21:30 한국기행
06:0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여목강정과 미역줄기셀러드)	15:45 시계마을 타기투! - 16시 방귀대장 뽕뽕이(재)	(명물찾아 삼만리 - 섬 총각의 사모작 서거차도)
06:20 세계테마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30 두다다	21:50 EBS 다큐프라임
07:00 레이디 비그	12:00 EBS 정오 뉴스	16:45 당동당 유치원1~2(재)	22:45 글로벌 앵글 찾아 삼만리
07:30 로보카 폴리	12:10 미스터리 휴먼 다큐 <겨울산 보물 캐는 말뚝새 새, 새>	17:15 얼마 깨투리	23:35 메디컬 다큐 - 7요일 <마음으로 천하>
07:45 출동! 슈퍼왕스	12:40 세상의 모든 범죄(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마지막 목소리 - 후두암 외)
08:00 당동당 유치원1~2	12:45 메디컬 다큐-7요일(재)	17:45 호기심나라 오기도	24:25 세상의 모든 범죄 <황금비둘기>
0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13:40 장수의 비밀(재)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1~4	24:30 한국영화특선 <시라노 : 연애 조각단>
09:00 방귀대장 뽕뽕이	14:30 레이디비그	19:00 너티너츠	
09:15 울굴한 소방차 레이	15:00 요술 상자	19:30 EBS뉴스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05 내 친구 아서	19:55 극한직업 <바다를 누는 사람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8일 (음 6월 17일 丁卯)

<b>子</b>	48년생 현재의 공허함을 수용하면서 대응하다 보면 실리를 추구할 수 있다. 60년생 어지간하면 그만 끝내라. 72년생 고민해 왔던 일이 서서히 풀릴 것이다. 84년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다. <b>행운의 숫자 : 44, 71</b>	<b>午</b>	42년생 포장만 잘 해도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54년생 합리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속출한다. 66년생 만전을 기해야겠다. 78년생 어떻게 하든지 무리없이 없는 날이다. 90년생 있는 그대로가 가장 나은 형태이니라. <b>행운의 숫자 : 52, 14</b>
<b>丑</b>	49년생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61년생 지구력의 정도에 따른 편차가 대단히 크다. 73년생 바라보고만 있어도 즐거움을 더 할 것이다. 85년생 곧 끝될 것 같으면서도 차일피일 미뤄질 수도 있었다. <b>행운의 숫자 : 30, 18</b>	<b>未</b>	43년생 재물이 기막히게 길한 날이니 잘 배려라. 55년생 두고두고 가슴에 남을 만한 일을 겪으리라. 67년생 관리를 잘 하자. 79년생 신수성보다 완벽성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91년생 신중해야만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b>행운의 숫자 : 96, 50</b>
<b>寅</b>	50년생 파격적인 사래가 될 것이니라. 62년생 원칙대로 진행하라. 74년생 자신의 마음과 감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라니 하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다. 86년생 상태는 양호하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b>행운의 숫자 : 15, 12</b>	<b>申</b>	44년생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진중하게 노력해야 할 때다. 56년생 구비 요건부터 갖춰 놓고 불일이다. 68년생 본격적으로 임하기 이전에 검증해야 할 부분이 보인다. 80년생 끝나는 마당에 탈이 날 수도 있다. <b>행운의 숫자 : 71, 33</b>
<b>卯</b>	51년생 반의무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부담을 안게 되리라. 63년생 소기의 성과를 쉽게 거둘 수 있는 판시세에 놓인다. 75년생 독창성이 없다면 식상할 뿐이다. 87년생 중대 고비를 넘기는 분수령이 되리라. <b>행운의 숫자 : 95, 82</b>	<b>酉</b>	45년생 실행하기 위한 예비작 절자들이 필요하다. 57년생 행보에 따른 변수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리라. 69년생 따질 계제가 아니니 일단 수용하고 보자. 81년생 확인하는 습관이야말로 면책케 할 것이다. <b>행운의 숫자 : 17, 30</b>
<b>辰</b>	52년생 참된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64년생 여태까지 골마리를 알아 왔던 것에 대한 해결의 열쇠가 보이리라. 76년생 의문이 시원스럽게 풀리는 날이다. 88년생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조치가 결실을 낳으리라. <b>행운의 숫자 : 80, 85</b>	<b>戌</b>	46년생 경시할 때에는 액을 당하게 되어 있다. 58년생 상당한 저항이나 부작용이 따를 수 있음을 감안하라. 70년생 합의하여 행하는 것이 후유증을 없애리라. 82년생 계획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연이 될 형편이다. <b>행운의 숫자 : 16, 03</b>
<b>巳</b>	53년생 철저히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65년생 의외의 돌발 상황이 나타나서 판국을 좌우하겠다. 77년생 취지는 좋으나 진행되면서 휘석되어질 수도 있다. 89년생 투철한 의지로서 역량을 발휘한다면 별 문제는 없다. <b>행운의 숫자 : 39, 87</b>	<b>亥</b>	47년생 길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실상은 대동소이하다. 59년생 외형까지 손질한다면 훨씬 더 빛나리라. 71년생 말을 듣고 나면 상당한 충격에 빠질 수 있다. 83년생 마음을 들뜨게 하는 즐거움이 보인다. <b>행운의 숫자 : 84, 80</b>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